KASPAR LAURENZ
다양한 사과꽃의 나무

2026
키츠뷔엘

우리는 예술을 영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회화를 보존하고 조각품을 관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작품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종종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이 생명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예술의 재료로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는 베어진 후에 조각 작품의 재료가 되고, 식물은 압착되거나 건조되고 보존된다. 한때 살아 있던 존재는 변하지 않는 사물로 바뀐다. 나무의 경제적 가치조차 벌목한 뒤 목재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은 살아 있고, 변화하며,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치를 지닐 수는 없을까?

나의 살아 있는 조각 작품들은 완성된 사물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 자체가 예술적 과정의 일부를 이루는 생명체다. 이들은 자라고,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형태를 바꾸고, 완전한 통제를 벗어난다. 어느 시점에 제작이 마무리되는 회화와 달리, 살아 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서 예술가는 창조자라기보다 돌보는 사람이다. 그는 개입하고, 형태를 다듬고, 가지를 치며,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 자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예술작품은 창작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한다.

다양한 사과꽃의 나무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다양성이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줄기 위에 서로 다른 사과 품종들이 자라며, 각각 다른 꽃과 열매, 성장 방식을 지닌다. 이 품종들은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되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봄이 되면 나무에는 색과 형태가 서로 다른 수많은 꽃이 피어나 하나의 수관을 이룬다. 가을에는 색깔과 크기, 맛이 서로 다른 열매들이 열린다. 일반적으로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다양성을 한 그루의 나무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나무의 아름다움은 외형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들의 차이에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 역시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신념이 공동의 질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를 보호하며, 끊임없이 새롭게 조율해야 한다.

서로 다른 품종이 함께 자라는 나무 역시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에는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 가지가 시들거나 병이 퍼질 수 있고,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나무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때로는 특정 품종을 다시 접목하거나 나무 전체를 어린 나무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나무 한 그루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나무가 구현하는 가치를 이어 가는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 역시 근본적인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은 이 작품의 강점인 동시에 취약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 나무를 사회의 완벽한 축소판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나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소속과 독립성, 상호 의존과 책임, 통제의 한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작품들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예술적 아이디어와 그것의 실현 사이의 관계다.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 일이 예술가에게만 허락된 특권은 아니다. 하나의 나무에 서로 다른 사과 품종을 접목하는 기술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누구나 배우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

앤디 워홀은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작업을 통해 유일무이한 원본이라는 신화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현대미술의 일부 영역에서는 예술적 아이디어 자체의 유일성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같은 아이디어를 다시 실현하는 행위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는 독창성은 어떤 생각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그 생각을 각자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과정에도 독창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아이디어'라는 말은 형태, 모양, 외관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idéa*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예술작품의 최종적인 형태는 미리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연과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에는 순간적인 창조적 발상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수십 년에 걸쳐 책임을 지고 작품의 성장을 함께할 의지가 요구된다. 각각의 나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고유한 형태를 갖추며, 그것을 돌보는 사람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변화한다.

아이디어의 반복이 곧 작품의 반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창작 과정은 결국 시간과 유한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나무를 심은 사람은 나무와 함께 늙어 갈 수 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나무도 형태를 바꾸며, 시간이 남긴 흔적을 점점 더 많이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생명 또한 유한하다. 나무는 한 세대나 두 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나무의 죽음이 반드시 작품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궁극적인 결과다.

바로 이 점에서 나무는 전통적인 예술작품의 개념과 구별된다. 우리는 회화와 조각을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예술작품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서는 보존할 수 없다. 성장과 노화,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소멸은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작품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억과 사물, 아이디어를 자신의 생애 너머까지 남기려 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가치는 우리보다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작품과 함께 나누는 시간에도 그에 못지않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나무는 자신의 삶 자체가 예술의 주제가 되는 작품이다.

예술작품은 가치를 지니기 위해 시간을 견뎌 내야 하는가?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소멸한다는 사실 자체에 그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